

재인니 한국 신발협의회 2018년 상반기 회장단 회의 열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을 선도하는 재인도네시아 한국 신발협의회는 동아시아를 넘어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인기업중 가장 모범되는 협회로 급부상하는 또다른 10년을 만들 것



MONTHLY KOFA

코파의

칭찬

Tel. 021-55797281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Ruko Pinangsia



Vol. **45** 2018/06

KOFA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재인니 한국 신발협의회 2018년 상반기 회장단 회의 열려



지난 24일 재인니 한국 신발협의회(이하 KOFA, 회장:신만기)는 2018년 상반기 회장단회의를 팅그랑 소재 임페리얼에서 가졌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 신만기 KOFA회장, 송창근 KOFA 명예회장을 비롯해 40여명의 회장단이 참석해 2018년 한 해의 활동과 하반기 KOFA활동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했다.

신만기 KOFA회장은 지난 9년간 단합된 모습을 보인 KOFA는 인도네시아 타 기업의 부러



▲KOFA 2018년상반기 회장단 회의 기념촬영

움을 사 왔고 이러한 영향을 받아 베트남에서도 신발협회가 곧 창립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KOFA는 2009년 송창근

명예회장의 열정으로 창립해 1대,2대 임기를 거쳐 3대,4대 신만기 회장으로부터 코파의 꽃을 피워 나가고 있으며 올해 10

년차를 맞이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신발산업의 공감대 형성과 상생, 도약등의 슬로건으로 신발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왔다. 이번 2018년 상반기 회장단 회의는 다가오는 제 10회 한국 신발인의 날을 맞아 회장단 모두 KOFA를 위한 노고와 감사를 격려하고 나누는 훈훈한 자리가 되었으며 새로운 10년을 위한 준비를 다함께 해 인도네시아 한국 신발산업의 미래를 후배들에게 글로벌 비전으로 남기자는 고감을 나누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을 선도하는 재인도네시아 한국 신발협의회는 동아시아를 넘어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인기업중 가장 모범되는 협회로 급 부상하는 또다른 10년을 만들 것을 기대한다.

동남아에 연구소 추진...부산 신발 글로벌 진출 지원



부산지역 신발 업체는 2016년 기준 230개사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7%에 달한다. 종사자 수는 5천864명(50.8%)이다.

출하액은 9천130억 원(36.9%), 수출액은 2억4천900만 달러(42.5%)로 전체 지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부가가치 역시 3천80억 원에 달하지만 숙련공의 고령화와 전문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늘고 있다.

지역 업체의 80%가 글로벌 신발 브랜드의 주문자위탁생

산(OEM) 업체로 성장과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전체 지역 업체의 78%가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세업체여서 마케팅이나 기술개발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부산시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신발 브랜드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신발 업체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 기업과 상생방안을 모색한다.

또 업계 공동으로 글로벌 신발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OEM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신발 외에 기능성 특수화나 범용 상용화 등의 브랜드를 개발해 육성하는 방안은 긍정적"이라

고 말했다. 시는 동남아 진출 기업과 지역 대학 등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동남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한국신발과학연구소 동남아 분원 설립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베트남 진출 한국신발기업협회가 내달 출범하고 글로벌 신발브랜드 기업 육성 전담팀을 7월 중 구성하기로 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영세 신발업체를 분야별로 묶어 해외 진출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내년 범한국 신발인대회와 포럼, 제품설명회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조정청, 온라인 인허가 제도(OSS) 시행 또다시 연기...이달 말 완료 목표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통합 인허가 제도인 '온라인 싱글 서브미션(OSS·Online Single Submission)'의 도입시기가 다시 연기됐다.

현지 언론 드퓌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투자조정청(BKPM)은 당초 20일부터 OSS 운영을 시작한다고 했지만, 시스템이 아직 준비 중이라 실시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4월 예정에서 재차 연기됐다.

토마스 렘봉 투자조정청장은 운영 개시 지연에 대해 "시스템 준비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중앙·지방정부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 편성이 늦었다"라고 말하며 "전국 514



개 군·시 중 태스크 포스가 구성된 지역은 전체의 82%였다. 서부 자바 짜아미스와 인드라마유 등 92개 군·시가 늦게 편성됐다"라고 설명했다.

토마스 렘봉 청장은 이어 "시스템은 전국에서 일체히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조정부는 이달 말에 도입돼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PT. JEONGSUK TECH ABADI

Since 1996

Contractor Engineering Electrical & Supplier

“정직한 기술로 신뢰를 구축합니다”

Tel & Fax : (021) 5566 2989 Email : baeksy68@hanmail.net MB : +62 811 903 144
 Jl. Sawo Raya 19B, Kel. Cibodasari, Kec. Cibodas Perumnas 1 Tangerang Banten 15138



인도네시아까지 밀어닥친 신흥국 금융 불안...정책 당국 예의 주시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로 시작된 신흥국 금융 불안이 아르헨티나, 터키를 거쳐 인도네시아에 상륙했다. 외국인 자본 유출과 이에 따른 금융 불안이 한국과 인접한 동남아 지역에서도 가시화되면서 경제 정책 당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터키는 일찌감치 미 통화 긴축 시 위기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요주의 국가로 꼽혔다. 이들 국가와 달리 인도네시아는 대외건전성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됐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무역, 투자 측면에서 아르헨티나, 터키보다 한국 경제와 관계가 긴밀하다.

우리 정책 당국이 인도네시아 금융 불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이유다.

한 경제 당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역내 위기가 확산될 경우 신흥국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은 경제 기초 체력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다른 동남아 국가와 확실히 차별화된 상황”이라며 “만일의 경우에는 대비해야 하지만 과도한 우려는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 17일 기준금리(7일물 역리포금리)를 기존 4.25%에서 4.50%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나타난 루피아 가치 급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자



▲ 미국 금리 인상발(發) 신흥국 금융 불안이 인도네시아로 확산되면서 인도네시아 루피화 가치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블룸버그

구책이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2014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이다.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고조되면서 신흥국 금융 불안이 한국 금융시장으로 전이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

다. 한 금융 연구소 관계자는 “세계 금융위기 당시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된 경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한국에서도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며 “이런 경우 자금 유출은 질서 있게 이뤄지지 않고 금융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국내 금융사들이 성장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투자를 대폭 확대한 지역이라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인도네시아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국내 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될 뿐 아니라 신흥

국 금융 불안으로 국내 금융사의 달러 자금 조달 환경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가 금융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통화 긴축에 나서면서 경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경우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여기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7위 교역 대상국이다. 지난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 규모는 170억달러로, 수출이 약 80억달러, 수입이 약 90억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력 감독 전담반 발족

인도네시아 정부가 17일 외국인력 감독전담반을 발족하고 외국인력과 고용주의 위반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8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전담반 구성은 국회 제9 상임위원회의 권고와 최근 정부의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무하맛 하늬 다끼리 인력이주 장관은 17일 자카르타 외국인력 감독전담반 출범식에서 “정부가 외국인력 고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감독을 강화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하늬 장관은 이번 전담반의 설립 근거는 인력부 장관령 No. 73/2018라며, 외국인력 위반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콜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담반은 허가문제, 고용상태, 노동허가와 실제 업무와의 차이 등 여부 등 위반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현재 이민국 소속의 외국인력

감시팀(Timpora)이 있지만 대략 85,974명이나 되는 인도네시아 취업 외국인력을 감시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 제9 상임위원회 데데 유습 위원장은 과거에는 펄펄라로 충분했지만, 2016년 이후 많은 위반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좀더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담반에는 외국인력 관련 정부 부처 24개에서 파견된 인력 45명이 참여하며, 앞으로 6개월 간 활동한 뒤 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인력부의 수경 뿌리얀또 대변인은 “예를 들면 광산업에 취업한 외국인력에 대한 조사는 에너지광물부의 자료와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담반은 제조업, 광업, 서비스



▲ 인도네시아 인력 당국이 불법 또는 단순노동 외국인력 신고를 권고하는 공지문. [사진출처: 엘신따]

업, 물류산업, 농업, 무역,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인도네시아에 외국인력이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취업한 외국인노동자 수는 2013년에 70,120명에서 2017년에 85,974명으로 증가했다.

인력이주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위반사례는 2016년에 848건에서 2017년에 775건으로 감소했다.

위반사례가 많은 곳은 광업, 무역업, 해양수산업, 서비스업 등이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

SunStar

Indonesia Semarang Promotion
2018.02.01 ~ 03.31

- ▶ 무상순회 AS [공장별]
- ▶ 정품 부품 할인 판매 [한시별]
- ▶ 봉제 생산정보 [SDMS 설명]






PT. SUNSTAR MANDIRI INDONESIA

PT. SUNSTAR MANDIRI SEMARANG OFFICE

SunStar
SWF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okh@sunstar.co.kr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kevin kang1103@gmail.com

화승그룹 2년 연속 연 매출 4조 원 달성

1953년 설립된 대표 향토기업...
 지난해 4조6000억 원 기록,
 사업 다각화 · 기술경영 성과



▲ 화승비나 베트남 현지 공장의 신발생산 자동화 라인. 화승그룹 제공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인 화승그룹이 2년 연속 연 매출 4조 원을 돌파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화승그룹은 15일 “지난해 그룹 매출이 4조6000억 원으로, 2016년 4조5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4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953년 동양고무로 창립해 올해로 창립 65주년을 맞은 화승그룹은 2002년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 2008년 2조 원을 넘어선 지 8년 만에 다시 매출이 배로 급증했다.

화승그룹의 무서운 성장세는 현승훈 회장이 과감한 결단을 통해 사업 다각화와 기술 경영에 집중한 결과다.

화승그룹은 기존의 신발 사업에서 자동차부품, 소재, 화학, 종합무역 등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면서 변화하는 시장과 위기 속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화승그룹은 현재 5개 사업군에 국내외 42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혁신을 이끄는 주력 기업은

(주)화승R&A를 비롯해 화승 T&C 등 자동차부품 사업군의 계열사다.

화승R&A는 자동차 부품 산업을 주축으로 새로운 미래기술 및 신사업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제47회 오토모티브 이노베이션 어워드(SPE Automotive Innovation Awards)에서 파워트레인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자동차용 고무 부품을 생산하는 화승R&A가 플라스틱 분야에서 수상했다.

(주)화승인더스트리는 접착제를 비롯한 신발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신발 사업의 국내 상장사인 화승엔터프라이즈는 탁월한 실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주)화승엑스윌은 컨베이어 벨트, 산업용 호스, 선박 접안용 완충제 등 고무제품을 판매하는 전문기업으로 최근 생산과 물류, 유통 분야를 개척 중이다.

(주)화승네트웍스는 통합 구매와 철강, 섬유, 일반 무역 사업 분야에 경쟁력을 갖췄다. 신

발 사업군에서 화승비나(베트남 동나이)와 장천제화유한공사(중국 다롄), 화승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스마랑)는 연 6500만 켈레의 아디다스·리복 운동화를 생산하며 ‘세계 제1의 신발 공장’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소재사업군의 (주)화승소재는 중국, 인도 CMB 공장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해외영업 전략을 통한 글로벌 제품시장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 명례산업단지 방산, 해양, 신소재 개발을 위한 제2공장을 설립했다.

현 회장은 “정상에 오르게 하는 것은 겸손이고, 정상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교만”이라며 “화승그룹은 올해 65주년을 맞은 글로벌 중견그룹으로 더욱 몸을 낮춰 고객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부동산 까와산 인더스트리 자바베카 “올해 부동산 사업 매출 두 배로”

인도네시아 부동산 대기업 까와산 인더스트리 자바베카(PT Kawasan Industri Jababeka, 이하 KIJA)는 올해 부동산 사업 목표 매출액을 전년 대비 2배인 2조 2,500억 루피아로 설정했다.

인프라 환경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 등을 배경으로 주변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지 언론 끈판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KIJA의 부디안또 리만 대표 이사는 “부동산 사업의 지역별 목표 매출은 서부 자바 짜카랑이 1조 5,000억 루피아, 중부 자바의 끈달 공단이 5,000억 루피아, 서부 자바 반뜰의 판중 레송이 2,500억 루피아이다”라고 말했다.



부디안또 대표 이사는 이어 “자카르타 수도권의 경전철(LRT)과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교통편이 정비되고 있어 짜감빠와 판중 레송의 부동산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KIJA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조 9,950억 루피아였다. 이 가운데 인프라 사업이 59%, 부동산 사업이 37%였다.

인니서 국내외 제화 20개사, 4천만 달러 투자 계획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국내외 신발 기업 20개사가 신규 및 확장 사업에 총 4,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인베스터 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제화업자협회(aprisindo)는 이러한 투자가 실현되면 올해 신발 수출액은 목표액 50억 유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실적보다 약 11% 증가할 수 있다.

제화업자협회의 에디 회장에 따르면, 20개사 중 대부분은 반뜰주와 중부 자바주 등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기업명과 신규 투자 및 확장 사업의 구성비율 등이 세부적으로



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중에는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과 수출용으로 출하하는 기업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 회장은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많고 신발 산업에 있

어 투자처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는 주로 미국, 중국, 대만, 유럽에 수출됐으며 수출액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45억 2,000만 유로였다.



함께 하겠습니다.

실크로드 인도네시아는 디자인 연구소로서
 그간 코파의 힘,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각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로그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합성 소재에 대한 전망

합성 방직사/섬유 협회(The Synthetic Yarns and Fibers Association)의 추계 학술회의에서는 미국 경제 전망에서 급증하는 해양 쓰레기에 이르기까지 시의 적절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이번 4월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의 모임에서는 미국 시장과 기술에 중점을 두고 유용한 정보 및 생각을 자극하는 내용이 모아졌다.

UNC 샬럿(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John Connaughton 박사는 미국의 총 국내생산량 또는 GDP 상태에 대한 흥미로운 강연을 했다. 그는 1854년 이래로 두 번째로 긴 이번 106개월 경제 팽창의 근본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제 팽창은 GDP를 구성하는 두 가지 인자인 꾸준한 생산성 및 증가된 고용으로 여

겨진다.

교수는 현재의 경제 팽창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성장하거나 1인당 생산량을 높이거나 또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노동 성장 잠재력은 제한적이라고 Connaughton 교수는 경고했다. 미국 노동청 통계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력 성장은 1퍼센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는 GDP 성장은 생산성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술 혁신, 에너지 비용 절감, 소비 의욕 및 소비 증가, 국제 무역 확대로 증가하는 수요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onnaughton 교수는 최근 기업 세금을 낮춤으로 인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미국 경제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낙관적이다.

독성의 수로 및 오염된 해산물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좋지 않은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합성 직물 미세섬유 쪽으로 번지고 있다.

Camichael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성공적으로 이끈 운동가 조직인 '더 스토리 오브 스템프(The Story of Stuff)'에서 나온 "미세섬유에 관한 이야기(The Story of Microfibers)" 동영상 공유했다. 동영상의 결론은 합성 섬유 세탁이 미세 섬유로 인한 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합성 양털이 과연 현대의 전체 산업 형태를 지속시키는



데 방해가 될 것인가?' 라고 Camichael은 자문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

토지 오염은 Camichael가 SYFA 회원들에게 해결해야 한다고 장려한 또 다른 지속성의 결점이 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모든 환경 관련된 회의에서 합성물이 생물분해성 결핍의 주범이라고 다뤄지고 있다. Camichael은 일부 대학에서는 합성물질 분해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일부 개별적인 회사들 역시 반

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많은 회사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에코닐은 재생 플라스틱 낚시그물(해양쓰레기의 주범인)을 직물로 변환하고 있다.

또다른 SYFA 발표자인 인트린직 텍스타일(Intrinsic Textiles)은 합성섬유 분해를 돕는 CiClo 기술을 공유했다.

Textile Insight



대한민국 최초 ISO 8573-1 Class "0" 인증획득!



www.ekyungwon.co.kr



경원 콤프레샤는?

사용이 편리한 다기능 Full MICOM 장착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운전모드
대화가 가능한 운전소음
오일함량 2PPM 이하의 청정한 압축공기
주위온도 50C에서도 안정적 운전가능

경원의 모든제품 AS가능
(한국에서 구입한 제품도 가능) 및
주요부품, 소모품 상시보유



대한민국 콤프레샤의 역사 - 경원 콤프레샤

Air Compressor & Equipment



스크류 공기압축기 스크롤 공기 압축기 오일프리 공기 압축기 왕복동식 공기 압축기 애프터 쿨러 에어 드라이어 에어필터 에어탱크

PT. KYUNGWON CENTURY KORAIR

INDONESIA OFFICE

Jl. Raya Serang KM. 12 Desa Bunder
Cikupa-Tangerang
Telp : 021 5940 2605
MR. Kim : +62 811 932 689
MR. Seo : +62 858 8042 4638
E-Mail : kimb160@gmail.com

JEPARA OFFICE

Ruko 1A Suudi RT. 04 RW. 01Desa Kali Pucang Wetan,
Kec. Welahan Jepara Jateng (Depan SMPN 1 Welahan)
Kode Pos 59464
Telp : 0291 751 2948
MR. Lee
Mobile : +62 811 105 957

KOREA OFFICE

102 Dongil-Ro, Kwangjin-Gu
Seoul, Korea
Telp : +82 2 465 6308
Fax : +62 2 468 7202
E-Mail : dbkw2000@hanmail.net
http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신발산업의 현재와 미래”

[편집자주] 이 글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 관련 연구단체인 ‘인도네시아포럼’에서 발제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인 엄은희 박사의 ‘신발산업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와 한인기업공동체의 공간전략’이라는 제목의 조사·연구 보고서와 한국 언론의 기사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글 :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파크랜드 월드 인도네시아의 중부자와주 쓰빠라 공장. 2016. 9. 8

신발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계 신발업체들은 견재할까?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이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자동화(로봇) 공정을 늘려가고 있다. 이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비숙련·저임금 근로자의 실직 우려가 커졌다.

최근 나이키는 첨단 제조 기업인 ‘플렉스(Flex)’와 협력해 스포츠화를 생산하고 있다. 플렉스는 액티비티 트래커인 ‘핏빗(Fitbit)’과 레노버의 서버를 생산해주고 있는 정보통신 제조업체다. 독일의 ‘아디다스’는 23년 만에 자국 신발 공장을 가동시켰다. 해외에 있던 생산 시설을 다시 자국으로 옮기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 돌풍을 일으켰다. 100% 자동 로봇 공정을 통해 10명의 상주 인력으로 600명이 작업하던 연간 물량 50만 켤레를 생산한다. 신발 생산공장의 자동화가 향후 신발 산업의 미래, 아시아 지역 생산 공장 운영, 아시아 지역 신발 노동자들의 고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예고하는 사례다. 이는 신발산업이 더 이상 저임금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없으며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스포츠화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일본이, 1980년대~1990년대 초까지는 한국이, 1990년대 이후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이 전 세계 공급기지의 역할을 맡고 있다. 1980년대 말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따른 노동쟁의 증가, 가파른 원화 절상 및 임금상승에 따른

제조비 상승에 따른 채산성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국내 노동집약형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모색하게 됐고, 대상지로 동남아와 중국이 부상했다. 인도네시아는 1990년 전후 한국의 중소자본이 가장 선호한 투자대상국으로, 짧은 기간 동안 노동집약적 부문을 중심으로 ‘최초이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 한국과 대만의 업체들이 대거 중국과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시킨 배경에는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의 신발산업의 빅바이어들이자 브랜드 마케팅 기업들이 저개발 국가인 동남아와 중국 등으로 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 수입선을 대거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에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기업들 중 일부가 신규 투자처로 부상한 중국과 베트남 등지로 한번 더 옮겼다. 이는 1993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 인상이 연 10%를 상회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비 절감 효과가 낮아지고 대안적인 생산기지이자 한국에서 더 가까운 중국과 베트남의 부상이 동시적으로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2008년부터 중국의 생산원가가 급속도로 인상되면서 중국으로 진출했던 한국계 기업 중 일부는 한국으로 U-턴하거나 인도네시아로 재이전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계 투자기업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반뜰 주 땅그랑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해 왔다. 이에 따라 땅그랑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한인 집중 거주지로 부상했고, 신발회사 직원들이 썼던 생활비는 땅그랑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 베트남이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하였고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인도네시아의 사회경제적 혼란은 과거의 관행에 익숙했던 대부분의 한국계 신발기업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1세대로 분류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내 한인 신발기업인 가루다인다와, 동조, 스타윈, 코리네시아, 태화 등이 2005년을 전후하여 폐업 절차를 밟는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 후 인도네시아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고 대외여건이 변화하면서 제조업이 회복하기 시작했고, 재인니한국상공회의소(Kocham)와 재인니한국신발산업협회(KOFA)를 중심으로 다시 반등의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2005년

더 나아가 중국과 동남아국가들의 현지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산업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해외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운영 중인 기업들은 생산비 증가와 경영한계에 직면했다. 다른 한편 로봇 및 3D 스캐닝 및 프린팅 기술의 혁신 및 도입속도가 빨라지면서 신발산업 내에서 고기능·고품질 제품군들은 기술 수준이 높고 시장이 가까운 본국으로 유턴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독일 안스바흐의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speed factory)의 사례나 최근 중국에서 부산으로 유턴하는 한국기업들의 사례는 신발산업의 미래 역동성이 얼마나 크

특히 나이키 신발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중국 공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아시아 지역 공장을 갑자기 폐쇄할 경우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국가에선 향후 10~20년간 전체 일자리의 56%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시아 고용 시장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ILO의 장재희 씨는 “변화가 천천히 진행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공장들에 변화를 수용할 시간을 준다면 일자리 상실은 심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나이키와 같은 유명 브랜드들



▲과거 신발산업 중심지 부산진구에 신발 조형물

파크랜드의 풍원제화 인수는 신발업계의 재도약을 촉진했다. 파크랜드는 남성복 생산 설비 노하우를 신발 생산 라인에 접목하고 아디다스와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공장을 증설하면서 생산시스템을 자동화하는데 앞장섰다.

최근 자바 섬 내 최저임금 차별화의 이점과 조꼬위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 정책에 부응하여 중부 자바주 즈빠라와 살라따가 지역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한국계 신발업체의 인도네시아 내 이동(반뜰주에서 중부자바로)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화승, 파크랜드, KMK 등 대기업들이 이러한 대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시티뱅크 조사에 따르면 나이키는 플렉스의 제조공정을 활용해 ‘2017 에어 맥스(Air Max)’ 신발을 생산하고 있다. 플렉스는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접착 공정을 자동화하고 소재 커팅 작업에 레이저를 활용하고 있다. 플렉스는 신발 설계에서 생산까지 소요되는 리드타임(lead time)을 3~4주로 줄이겠다고 나이키 측에 약속했다. 이를 통해 나이키는 인건비 50%, 재료비 20%를 절감하고 매출 이익 12.5% 포인트 증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플렉스 시스템을 다른 곳으로 확대할 경우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 공급망 측면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계 기업이 주도하는 인도네시아 스포츠화 산업은 국내외 산업환경의 구조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기업들은 첨단 신소재 개발과 미래 디자인 등 기술혁신과 신발 공정 자동화와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으로 도약하는 동시에 다품종 소량 생산 등 인도네시아 신발산업에 적합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신발업계 종사자들은 말한다. “인류가 신발을 신고 다니는 한 신발 사업은 망하지 않는다.” (끝)

데일리인도네시아

백제 금동신발, 돌아오지 못하는 강 건너는 마법의 배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의 주빈국이 한국이었던 해의 부대행사로 베를린 시립미술관에 프라임 팔레 무제움에서 내

나주 금동신발 앞쪽 발등의 용머리 장식이 인상적이다. 삶을 떠나 죽음으로 가는 이행과정에 강이 놓여 있고 이 강을 건너게 해 주는 배가 있다는 전설은 동서양에 구별

하고 세련된 금동신발이 출토됐다. 타출(打出)기법의 접들로 이루어진 긴 선이 격자무늬를 만들고 각 선들이 교차하여 만들어진 구획 내부에 꽃잎 세 장이 들어 있다.

고창에만 400여 기가 넘는 고인돌이 있다. 숲으로 둘러싸인 완만한 언덕에 각각의 형세마다 다른 느낌으로, 가까이 있기도 하고 멀리 떨어

화초 사이로 보이는 봉황 문양 신비한 새의 날갯짓 아름다워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 발등엔 버선코 곡선 같은 용머리 장식 공주 무령왕릉, 고창 봉덕리 등 비범한 조형성의 신발도 매력



▲나주 금동신발 앞쪽 발등의 용머리 장식이 인상적이다.



▲나주서 출토된 금동신발의 드로잉, 16×21cm, 종이에 연필 및 수채.

삶의 행로 담긴 신발 신발만 덩그러니 그려 놓고 가장 많은 감동을 줬던 그림은 아마도 고흐의 신발그림일 것이다.

낱아빠진 자신의 가족구두를 그림으로써 자신의 얼굴 자화상보다 더 절절한 내면의 고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한 작품만이 아니라 여러 점을 그렸다. 때로는 신발을 뒤집어 바닥을 보여 주기도 한다. 어수선하게 풀려 있는 신발 끈, 울퉁불퉁해진 가죽표면들은 신발 주인의 고단한 삶을 엿보게 한다.

특이하게도 신발그림은 신발 주인의 부재, 벗어 놓고 사라진 주인의 아우라를 강렬하게 풍긴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고흐 그림의 신발 주인공을 신성한 노동의 직업인 농부였을 거라고 착각했다.

농부이든 화가이든 고흐 그림 속의 강렬한 회화적 필치가 신발 주인공의 육체적 노동의 시간을, 걷고 또 걸었던 삶의 행로를 웅변적으로 함축

개인이 개 최된 적이 있었다. 당시 전시제목이 '예술을 위한 신발' 이었다. 전통 꽃신이나 고무신이 마치 배처럼 느껴져서 거의 1년간 신발그림만을 그렸었다.

익산서 나온 금동신발엔 귀여운 울동미

없이 발견된다. 내 그림 속에서 벗어 놓은 신발은 주인의 일시적 부재뿐 아니라 항구적 부재, 즉 다른 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배로 변모했다.

그런데 신발그림을 그리던 당시 나는 백제의 유물, 금동신발들을 잘 몰랐다. 알았다 하더라도 그냥 지식으로 스쳐 지나갔던지 내 의식 속에는 남아 있지 않았던 것 같다. 10년이 더 지난 후 유물연구를 하러 박물관 답사를 다니다가 무령왕릉 출토 왕비의 신발을 보았다.

비록 바닥에 스파이크 모양의 징이 있을지라도 그 간결한 신발형태와 위에 새긴 비범한 문양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말로 다른 세계로의 강을 건너게 해 줄 법한 마법의 배이자 꽃신이 거기에 있었다.

문양들의 화려한 기세가 육각형의 경계선을 뒤덮고 있고, 화초 사이사이로 봉황처럼 보이는 신비한 새들의 날갯짓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공주에서는 무령왕릉 외에도 수촌리 4호분에서 왕비의 금동신발과 유사한 화려한 투각의 신발이 나왔고, 수촌리 1호분에서는 격자무늬와 T자 문양의 단순명료한 형태의 금동신발도 나왔다.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온 곳인 익산의 입점리에서도 간결

한 귀갑형 기본 구획 안에 역동적인 문양들이 새겨져 있고 신발 바닥에는 연꽃무늬와 도깨비무늬가 정교하게 투각돼 있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 신발 앞쪽 발등에 용머리 장식이 과감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추가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밑으로 흘러내렸다가 다시 치켜드는 용의 곡선이 조선시대 버선코의 곡선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창덕궁 궁궐의 기와선 같아 보이

기도 하다. 신라 식리총·황남대총 고분서도 출토 고창 금동신발의 투각 기술이 놀랍다. 형상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나주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고창의 봉덕리에서도 재미있는 형상의 금동신발이 나왔다. 투각 기술도 놀랍거니와 귀갑형 속에 들어 있는 형상들을 관찰하자면 저절로 미소가 나온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할 것 같은 진기한 새들, 징벌하기보다 즐거움과 선함을 선물로 줄 것 같은 이상한 나라의 새들이 거기에 들어 있다.

고창은 청동기 유적 고인돌로 더 유명한 곳이다.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한반도에 있고 그중에서도 전라도에 집중돼 있다.

▲고창서 나온 금동신발의 드로잉, 18.5×26cm, 종이에 연필과 수채.

고창 금동신발의 투각 기술이 놀랍다. 형상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나주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고창의 봉덕리에서도 재미있는 형상의 금동신발이 나왔다. 투각 기술도 놀랍거니와 귀갑형 속에 들어 있는 형상들을 관찰하자면 저절로 미소가 나온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할 것 같은 진기한 새들, 징벌하기보다 즐거움과 선함을 선물로 줄 것 같은 이상한 나라의 새들이 거기에 들어 있다.

고창은 청동기 유적 고인돌로 더 유명한 곳이다.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한반도에 있고 그중에서도 전라도에 집중돼 있다.



▲고창 금동신발의 투각 기술이 놀랍다. 형상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저 있기도 한 고창의 고인돌들은 현대의 대지예술이 추구하듯 자연과 예술의 진실스러운 만남이 성공한 장소로 여겨진다.

평온해 보이는 대지 위에 기쁨의 돌이 있다면 이곳의 돌들이 아닐까 싶다. 백제시기 이전부터의 긴 역사를 가진 고창이기에 그곳의 금동신발은 더 특별해 보인다.

물론 백제 지역에서만 금동신발이 나온 것은 아니다.

신라의 식리총 고분과 황남대총 고분, 경북 의성에서도 조문국의 금동신발이 출토됐다.

식리총 금동신발은 귀갑형 기본 구조 속에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점에서 공주 무령왕릉, 고창 봉덕리,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들과 비교할 부분이 많다.

황남대총과 의성의 금동신발은 T자형 연속무늬라는 점에서 공주 수촌리 1호 금동신발과 매우 흡사하다.

이렇게나 많은, 황금보다 더 귀한 신발들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마치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 위해 만들어 준, 깊은 강도 배처럼 건너가게 해 줄 것 같은 신비로운 신발들. 고대 한국의 여러 왕국은 전쟁만 한 게 아니라 예술의 교류와 변주, 비범한 조형성을 만개시킨 놀라운 창조자들이었음이 틀림없다.

최고의 건강 선물

빨간야파즘

Rp. 600.000 60팩 / Box

한국건강원

빨간야파즘, 양배추즙, 강황즙, 우영한약즙, 우영즙, 늙은호박즙, 여주즙, 가지즙, 미나리즙, 시르식즙, 십전대보탕, 개소주 액기스, 장어 액기스, 코브라 액기스, 킹코브라 액기스, 배도라지즙, 배즙, 키위즙, 포도즙, 사과즙, 비아그라, 씨알리스, 웅담, 저담, 사담

이슬브
종류액

개소주 종류액, 흑염소 종류액, 코브라 종류액, 자라 종류액, 잉어 종류액, 장어 종류액, 봉어 종류액, 마늘 종류액, 오가피 종류액

HP. 0811-92-3200
Tel. 021-2931 3027

인도네시아 전 지역
배달 드립니다

가성비 최적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공장 유니폼

단체복

골프복

기타

JWjindohwang@gmail.com
0812 1324 1251
021 5518 037

내 발에 딱 맞는 맞춤형 기술의 급성장

신발 제조업의 미래에 대해 브랜드와 제조업체는 분석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공장의 위치, 고용 방법, 소재, 기술, 등 업계 관계자들의 연구는 끝나지 않는

의 두 시간 배송을 기다리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더 빠르다. 빠른 제조 속도를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를 사로잡는 방법이다.

서 사용할 수 있는 스캐닝 기술로 소비자의 발 크기, 모양, 걸음걸이를 스캐너와 힘판으로 측정하여 디지털 프로필을 생성한다.

HP Inc., RScan International과 제휴하여 개발한 FitStation은 소비자가 FitStation의 키오스크를 돌아다니는 동안 맞춤형 3D 프린팅 인soles을 제조한다.

첫 번째 장비는 작년 여름 러닝 전문 매장에 비치되었다. 일리노이주 네이퍼빌의 Naperville Running Co.,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의 Red Coyote,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의 Gazelle Sports가 장비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2018년 더 많은 매장이 도입할 예정이다.

FitStation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작년 12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러닝 이벤트 박람회에서 Brooks는 기술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FitStation과 Brooks의 러닝 시그니처 생체인식 프로그램은 브랜드가 구두골을 선택하고 미드솔을 제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체 역학에 들인 30년 노력이 나타나는 제품.” 이라고 Brooks의 제품 라인 관리 담당자 Carson Capara는 말했다. “러너 중심의 맞춤형이 아닌 나만의 신발에 가깝다. 러닝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현실로 도입하는 방법이며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훌륭한 기폭제다.”

FitStation으로 제조하는 Levitate는 올여름 생산을 시작한다. Capara는 제휴로 얻은 다른 길을 탐험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선두에 서고 싶은 분야는 개인화.” 라고 그는 말했

다. “다른 사람들은 외부와 단절된 자동화 제조에 집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도구를 가지고 내 발에만 꼭 맞는 신발을 제조하고 싶다.”

Superfeet은 독자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FitStation은 데이터를 수집한 뒤 운동 후 신을 수 있는 맞춤형 샌들 ME3D Recovery Slide을 제조한다. 올해 출시되는 이 제품을 토대로 다른 브랜드에서도 유사한 제품을 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신발을 제조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었다.

“FitStation을 출시하며 깨달은

사)가 시공했으며 20~25명의 직원이 고용될 예정이다.

Flowbuilt는 디자인, 원형, 커스텀, 인솔, 슬라이드, 신발 생산을 담당할 것이다. Flowbuilt는 1년에 350,000켈레의 신발을 생산한다. 현재 2주에 걸쳐 배송되는 커스텀 밀창은 2~3일로 줄어든 것이다. Flowbuilt는 제조 시설인 동시에 연구 시설이라고 Olive는 말했다. “제작기 다른 사람들의 움직이는 패턴과 모형 및 다른 요소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수 있다. 더 빨라진 원형 제조 시간 덕분에 개발과 디자인도 진보한다.”

FitStation은 아웃도어, 컴포트, 캐주얼 매장까지 확장 계획이 있다. 그리고 데이터와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것에 대해 계속 다른 신발 브랜드와 토



▲ Superfeet의 ME3D Recover Slide

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신발 브랜드 Keen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지난여름, 자동차 산업에서 영감을 받은 로봇 Uneekbot과 스트리트 샌들로 각광받는 Uneek 샌들이 도쿄 투어에 나섰다.

Uneekbot은 스트리트 스타일 매장 Beams에서 ‘세상에서 제일 작은 신발 공장’이라는 주제 아래 신발을 제조했다. 총 주문 제작 시간은 30분이고 실제 로봇이 제조한 시간은 6분이었다. Uneekbot은 미국 내에서도 올 4월부터 투어를 시작한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시애틀, 포틀랜드의 대학 캠퍼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패션, 엔지니어링, 로봇틱스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와 협업을 맺어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 투어의 목표다.

“제조업의 3D/4D 프린팅 사용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고 Keen의 마케팅 담당자 Tyler LaMotte는 말했다.

“실시간 제조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제 Amazon

학생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길 원한다. 미래의 디자이너, 엔지니어에게 영감을 주고 협업하고 싶다.”

Superfeet이 새로운 제조 사이클을 출시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미국 내에서 커스텀 러닝화를 제조하기 위해 Brooks Running과 협업을 맺은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공장인 Flowbuilt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Superfeet FitStation의 프로젝트 매니저 James Whorowski는 커스텀, 맞춤형 신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동기라고 말했다. 브랜드와 파트너사가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은 이제 고지가 눈앞이다.

“맞춤형 신발이 인기다. 진화하는 제조업에 우리도 일조하고 싶고 Brooks는 이 카테고리의 선두주자가 되길 원한다.” 고 그는 말했다.

Superfeet이 작년 소비자에게 첫선을 보인 FitStation은 매장에



▲ Brooks는 Superfeet의 FitStation 기술 활용하여 맞춤형 러닝화를 제조한다.

사실은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제조 시설이 없다는 것.” 이라고 Superfeet의 마케팅 담당자 Amy Olive는 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Superfeet은 독자적인 제조 시설을 설립했다. Flowbuilt라는 별칭이 붙은 제조 시설은 1분기 말 개장할 예정이다. Superfeet의 펀데일 지점에서 가까운 이 시설은 DESMA (독일 PU 주입 장비 회

론하고 있다. “신발의 미래는 개인화라고 믿는다. 개인화는 커피, 뉴스피드, 식품 배달 등 어느 산업에나 있다.” 고 Olive는 말했다. “더 많은 개인화 현상이 일어날수록 소비자 기대 또한 더 높아진다. 우리는 개인화 트렌드의 최전선에 설 것이다.”



산업 전기 공사 전문

PT. YUCOM SANJEN

기술에 혼을 담다!

PT.YUCOM SANJEN은 16년의 인도네시아 산업현장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 고객만족을 넘어 감동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PLN 신설 및 증설 전기 / 계장 / 수,변전 설비 고, 저압 / 역률방지 / PLC / CONTROL PANEL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0 222 / 5982 666 Fax : 5984 666
김중환 : 0815 930 1026 E-mail : hatibuka95@gmail.com



향후 3년간 빠른 속도로 자동화 진행 전망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업무 자동화에 대해 제대로 준비한 기업은 1% 미만이었다.

WLTW 인도네시아의 헤리 하나피아 대표는 15일 언론에 “기업이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된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이 인력을 다양화하고 자동화 가능한 업무를 분류하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는 등 자동화와 관련된 사안을 준비하는 정도를 측정했다.

기업들은 로봇 조련사, 기계 학습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등 현재는 일반적이지 않은 직종을 추가해서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 부문의 기업들은 제조, 유통, 물류 분야 등 기업과 비교해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었다.

WLTW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자동화를 인력 감축 보다는 업무 지원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들은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인력을 대체하지 않으면서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확신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40%는 자동화가 사람의 생산력을 높일 것이라고 답했고, 43%는 오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업무 자동화는 위험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장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했고 비용을 줄이는 등의 효과를 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앞으로 3년간 정보기술(IT)이 빠르게 발달해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업무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사람의 역할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18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은 예금을 하거나 찾을 때 전통적인 은행 대신 인터넷 뱅킹이나 현금 인출기(ATM)를 사용하고, 심지어 금융상품에 대한 상담도 디지털 서비스기기가 대행한다.

월리스 타워 왓슨(WLTW)는 지난 16일 발표한 ‘글로벌 업

무의 미래’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앞으로 3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업무 자동화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였다. 이번 조사는 다양한 분야의 인도네시아 기업 39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WLTW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업무 자동화 비율이 3년 전에 7%에서 현재 11% 수준이 됐고, 3년 후에는 21%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앞으로 업무 자동화가 더 진행될 것으로

회원사 소개 안내

KOFA 소식지에서 회원사 소개를 매월 2개업체 이상 홍보합니다. 회원사 소개코너에 홍보를 희망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취재 → 인터뷰 → 촬영 → 편집 → 수정 및 교정 → 편집검품 게재

연락처 : 021-5579-7281
0858-9060-0962

HANSHIN

AIR COMPRESSORS

(주)한신기계공업 인도네시아 총괄대리점

인도네시아 한인기업과 함께 한 18년!!!

중부자와 서비스지점 오픈 !!!



NH 시리즈(피스톤 콤프레셔)
국내 최대 판매, 유일 수출
피스톤 콤프레셔 (1~20마력)



RCH 시리즈 (소형스크류 콤프레셔)
설치면적 최소화, 경량화, 정숙화 실현
(5~20 마력)



AD-HT 시리즈 (일체형 드라이버)
에프터 쿨러, 에어필터, 에어 드라이버 일체형으로 설치면적 최소화.
입구온도 80°C 설계로 더운 동남아 지역에 최적화.



GRH 시리즈 (오일 인젝션 콤프레셔)
스크류 : 독일(GHH-RAND사)
세퍼레이터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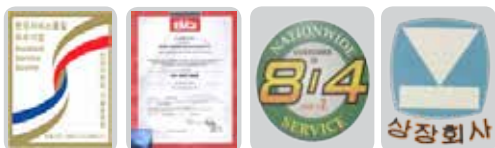


AL/CDH 시리즈 (오일프리 콤프레셔)
완벽한 오일 차단, 최장의 운전시간 보장, 최고의 오일프리 스크류 사용
AL 시리즈 : Kobelco(일본) CDH 시리즈 : GHH-RAND(독일)



매월 정기점검 서비스
국내 구입가 보다 저렴한 가격

세계적으로 성능이 인정된
독일 GHH RAND 스크류사용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현지인 매니저 / MARIONO : 0812 961 8455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스포티한 라이프스타일 : 아디다스 스니커즈 최고의 협업

아디다스는 2017년 말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최강의 브랜드는 대형 리테일 스토어들은 문을 닫고 있는 반면 계속 성장과 전체적인 브

였다. “아디다스 오리지널이 라이프스타일 컬렉션과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가 디자인하는 모든 것들은 스포츠에 뿌

드로 그 해 판매기록 TOP10 안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더한 것은, 이 브랜드가 Jordan 브랜드를 추월에 스포츠 신발 분야에서 넘버 2가 되었다고 Powell은 말한다.

아디다스를 스니커즈 시장에서 TOP을 유지하게 한 것은 작년에 이루어진 아디다스 오리지널 = 파렐 윌리엄즈와 비롯한 브랜드의 수많은 공조 덕이다.

스포츠와 라이프스타일의 완벽한 조화를 한 윌리엄즈는 긍정의 중요성을 중심에 두고, 스타일 이름도 “휴먼(인간)”의 첫 번째 음절을 딴 휴(HU)로 하는 노력으로 시장에서 성공을 했다. 감성 마케팅 캠페인 시대에, “해피(Happy)” 작곡가의 빅 픽처 메시지와 함께 한 디자인에 대한 사려깊은 접근은 소비자의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사랑을 통해 변화에 영감을 주는 전 세계인들의 개인적인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캠페인과 함께 아디다스 테니스 휴 컬렉션을 창조함으로써 스포츠, 문화 및 라이프스타일 세계 모두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파렐은 정말 여러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이디어와 영감은 문화에 스며들어 소비자화 진실된 연결을 하게 합니다.”

아디다스 전체 핵심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기여자는 아니지만, 윌리엄즈와 같은 브랜드와의 공조는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킨다는 점에 Powell은 동의한다.

“파렐은 그가 하는 작업에서 관점과 색상의 사용, 재미있는 감각과 열정에 대한 신선함을 보여줍니다.”

Run DMC와 파트너십을 하면

서 음악이 아디다스 정신의 일부가 되었던 반면, 스포츠 스타일과 음악은 오늘날 손을 맞잡고 간다고 Naderi-Nejad는 믿고 있다.

“이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창의적인 안목을 브랜드에 유기적이면서도 관련성 있는 방법으로 투영해 산업계에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을 지속하도록 신나는 프로젝트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덧붙여 뮤지션 Kanye West와 Pusha T와의 파트너십 또한 작년에 아디다스의 소위 길거리 평판을 높이기 위해 계속되었다고 한다.

Raf Simons, Stella McCartney, Rick Owens와 같은 패션 디자이너들과의 공조 작업이었던 Toss를 보면, 브랜드가 어떻게 전 영역 및 모든 성별에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확장하는지 쉽게

소비자와 더 깊은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라고 Naderi-Nejad는 말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점수에서 A를 득하고 유행을 선도하는 것 이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Powell은 말한다.

“아디다스는 이 업계에서 중간층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중간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맛과 세련미를 파악한 몇 안되는 브랜드들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리테일러들에게 핵심을 찌러 준 가장 인기있는 브랜드이죠.”

아디다스는 리테일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작년의 영광을 차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CEO인 Kasper Rorsted는 최근 올해를 모든 리테일 채널, 특히 온라인을 통한 미국 내에서의 또 다른 성장 연도로 예측했다.

2017년의 첫 9개월 동안의 미국 내 디지털 판매가 60% 이상으로 급등했고 회사 경영진은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려는 회사 목표를 다시 강조했다. Powell은 아디다스가 특히 승리의 공식에 있다면 더 괜찮은 상태라고 믿는다.

“만약 2년 전쯤으로 돌아간다면, 그 때는 아디다스가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사고 싶어 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때입니다.”

“그들은 200여명의 직원들을 독일에서 포트랜드 사무실로 이동시키고 비즈니스 실무를 변화시켜 유럽 중심 모델로 수년간 집중해 온 결과 대단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죠.”

Footwear Plus Magazine



▲ classic Superstar

랜드 인지도에 대한 확대를 멈추지 않았다.

사실, 2014년 스탠 스미스를 다시 론칭한 이래로 브랜드의 폭넓은 라이프스타일 믹스는 꼭 맞는 캐주얼 스포츠 스타일, 독점적인 협업, 그리고 전세계의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 및 수백만명의 추종자들과 팬들의 발을 장식했던 더욱 다양한 클래식 실루엣의 재탄생 영역과 함께 스포츠레저 움직임의 가장 중심에 존재해 왔다.

북아메리카 아디다스 오리지널의 선임 브랜드 디렉터인 Pascha Naderi-Nejad에 의하면 1971년에 첫 론칭한 스탠 스미스는 2017년 대표 실루엣을 지속하고 있었다고 한다. 2017년의 추가적인 최고 판매에는 수퍼스타, 크레이티, 이큐티(EQT) 및 캠퍼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브랜드 히스토리를 참고로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이다.

농구, 테니스, 축구로부터 온 복합적인 영향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에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인 프로피어나 I-5923과 같은 신제품들도 인기가 많

리를 두고 있고 결국 그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마음 속에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것과 스포츠 분야에서 우리가 해왔던 것에 대해 검증하고, 그것들을 지금 현대의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도전합니다.”

NPD 그룹의 부사장이자 선임 산업계 전문가인 Matt Powell에 따르면, 스포츠웨어에 대해 패션으로서 기능에 대한 집중을 하지 않기로 한 아디다스의 결정은 소비자에게 반향을 일으켰다고 한다.

“우리는 기능성 신발이 시장을 이끌고 있지 않는 사이클에 있습니다. 차라리 기능성에서 심미적인 특성으로 스포츠웨어 제품이 변화하고 있는 쪽에 가깝죠.” 라고 그는 말한다. “스니커즈의 느낌과 모양을 갖춘 스타일리쉬한 신발에 대해 아디다스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죠.”

Powell은 사실상 2017년은 아디다스가 처음으로 수퍼스타와 터볼러 슈도우 이 두 가지 브랜



▲ Tennis Hu x Pharrell Williams.

알 수 있다.

실제로, 고객 우선주의가 2017년 아디다스 마케팅의 핵심이었다. 회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언제나 새로운 경험을 체험하도록 한다.

“우리는 언제나 소비자로서 하여금 쇼핑을 하고 우리와 함께 어울리도록 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시장을 개발하고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ㄱ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yu@hotmail.com

북미 Adidas, 신입 회장 취임



▲ Zion Armstrong

북미 Adidas는 신입 회장을 맞이하지만, 전략은 그대로 유지

할 예정이다. 2014년 6월부터 북미 지점을 이끈 Mark King은 뉴질랜드 출신 Zion Armstrong(43세)에게 바통을 넘겨주었다. Adidas의 TaylorMade 골프 부서를 이끌었던 King은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브랜드의 전략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작년 Adidas의 매출은 35%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은 두 배로 상승했다. Armstrong은 총 매니저로 King과 함께 브랜드를 이끌었고 2015년 6월부터 북미 지점에서 근무했다.

King의 사임은 개인적인 이유라고 대변인은 밝혔다. 북미 회장으로 취임한 Armstrong은 Roland Auschel을 글로벌 매출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로 임명한다. King은 고문 자격으로 남을 예정이다. “준비가 잘 된, 매끄러운 인수 인계다. Zion Armstrong의 승진을 환영한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성공에 기여했으며 Mark King과 함께 북미 Adidas를 함께 이끌었다. Zion의 리더십으로 계속해서 성공적인 여정을 이어갈 것,” 이라고 Auschel은 말했다.

Adidas, 순이익 5억 4천만 유로 1분기에 달성



▲ 메시 오버레이를 탑재한 러닝화 Deerupt

Adidas는 전략적 집중 분야인 북미, 중국, 전자 상거래가 주도하는 1분기에 두 자리 수의 증가

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3월 31일 종료된 1분기의 순이익은 5억4천만 유로라고 Adi-

das는 발표했다. 러닝, 축구, 트레이닝, Adidas Originals 카테고리 고리가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Reebok의 매출은 트레이닝과 러닝 카테고리의 저조로 3% 하락했다. 북미와 중국의 매출은 27% 상승해 라틴 아메리카 5%, 러시아 16%의 하락세를 상쇄했다. 1분기 매출은 1.9% 상승해 55억 9천만 유로를 달성했다. 전자 상거래는 여전히 제일 빠르

Adidas, Nike와 Under Armour의 시장 점유율 차지

최근 Kanye West의 문제가 있지만, Adidas는 순조로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브랜드는 순이익이 17% 올라 5억 4천만 유로를 달성했다는 사실을 지난 목요일 발표했다. 특히 북미에서 매출이 강세였다. 라이벌 브랜드인 Nike는 최근 분기에서 불안정한 수치를 보였다. (Adidas는 여러 분기 연속으로 미국 시장에서 두 자리 수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Under Armour 또한 미국 내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으며 Adidas에게 시장 점유율을 내



▲ Nike, Adidas 브랜드 로고

어주었다. 하지만 Nike의 규모를 따라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2017년 Adidas는 북미에서 51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지만 Nike는 152억 달러였다. 최근 분석 기업인 Brandwatch의 연구에 의하면 Adidas는 Nike, Google, Puma를 제치고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들이 로고를 제일 많이 공유한 브랜드다. Image Insights의 제품이 Instagram, Twitter에 올려진 사진을 분석하니 Adidas의 로고는 한 달에 6백만 개의 이미지가 포함되었고 Nike 로고의 경우 5백만 개의 이미지가 포함되었다. 스포츠 후원은 공유된 콘텐츠 대부분을 차지한다. Cristiano Ronaldo를 포함한 FIFA 선수들은 Adidas를 유럽과 남미에서 선두 앞서게 했고 Nike는 미국에서 선두를 달렸다. Footwear news

게 성장하는 채널이며 27%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수익성의 핵심 지표인 매상 총이익은 51.1% 올랐다. 이는 화폐 역풍을 상쇄하는 더 나은 가격과 제품 혼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라고 Adidas는 말했다. Adidas는 2018년 북미와 아시아의 성장으로 매출이 10% 상승할 것을 기대했다. 순이익은 계속 올라 16억 2천만 유로에서 16만 8천만 유로를 달성하고 매상 총이익은 50.7% 상승할 것을 예상했다. Footwear news

라마단 기간중 영사과 민원실 운영시간 변경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과는 라마단 기간 중 인도네시아 국적 행정직원들의 단축 근무로 인하여 영사과 민원실 운영시간을 일시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한다. 운영시간 변경 참고하여 민원업무 접수 및 수령에 차질없도록 공지했다. 적용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종전과 동

일한 09시~12시, 13시~16시30분으로 운영된다. 라마단 기간 중 영사과 운영시간 변경
○ 적용시기 : 5.15(화)~6.14(목)
○ 영사과 민원실 운영시간 : 09시~12시, 13시~16시

공지사항

5.23일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적하목록모듈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업무 방식에서 몇 가지 변경될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우선 해상 선적전부터 5.23일 적용 예정입니다.
1. MBL&HBL: 인도네시아 수입자 TAX NO(NPWP)입력
2. MBL&HBL : DESCRIPTION란 각 품목별 HS CODE 필수 기재 (4자리까지만)
3. DESCRIPTION 란 품명기재시 상

세 품명 기재(기존과 동일)
*사전에 인도네시아 수입자측에 TEX NO 확인하여 선적서류 작성할 수 있도록 SHPR측에 안내 부탁드립니다.
*기존 1MBL&1HBL 발령의 FCL 건의 경우 일부 선사의 경우 도착지 적하목록 조정이 가능하였습디만 앞으로는 도착지 조정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사전에 수출입자간의 서류를 완벽히 하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KOFA 소식지는 알차고 참된 내용으로 회원사 소식과 정보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1. 회원사 주소 및 이메일 변경 등으로 협회에서 공식 공문 및 소식 전달에 애로가 있습니다. 때문에 회원사 정보를 다시 정리하여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고자 합니다.
1) 회사명 2) 대표자 (회원) 성명 : 한글, 영문 3) 개인 핸드폰번호
4) 회사 전화번호 5) 회사주소 6) 사용 가능한 이메일주소 7) 홈페이지 주소
2. 코파 소식지는 현재 주소가 있는 회원사는 우편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파 소식지가 우편으로 도착하지 않으면 위 정보를 다시 한번 협회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 indokofa@gmail.com 문의전화 : 021-5579-6569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비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점착

1. 35mm Trimdek (930mm x 35mm)
2. 25mm Trimdek (1040 x 25mm)
3. 35mm Spandek (920 x 35mm)
4. 110mm Seaming Type (Roll on Site) (420 x 110 x 225)
5. Genteng Metal (기 와) (82 x 35 x 20)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절판은 호주가 몬시안 PT. NS BLUE SCOPE INDONESIA 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점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경기부진 · 신흥국 위기...숨죽인 중앙은행들 돈줄 쥐고 관망세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확실시되지만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을 빼면 세계 경기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신흥

국 각종 경제 지표에서 명백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영란은행(BoE)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11월 0.5%로 인상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4차례 회의에 걸쳐 기준금리(0.5%)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달에는 0.25%포인트 추

미국 추가인상 전망에도 여타 주요국은 금리 동결 행진 '경기 부양 + 통화절하 방어' 신흥국 섹법 복잡

3~4월 2차례에 걸쳐 동결을 결정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가들의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 26일 제로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ECB 기준금리는 2016년 3월 0.05%포인트 내려 제로를 찍은 이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경기 변수들을 지켜보며 더욱 촉각을 세우는 곳은 주요 신흥국 중앙은행들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앞서 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인상 행진을 보인 멕시코는 폐쇄화 약세로 지난 17일까지 2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신흥국은 대내외 여건에 금리 인상과 인하 요인이 혼재해 더욱 미묘한 상황이다.

브라질은 2016년 10월을 시작으로 1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완화정책을 쓰다가 지난 16일에는 달러 강세를 견디지 못하고 동결했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급격한 통화가치 하락에 시달리는 국가들은 최근 기준금리를 올려도 추가 절하를 막지 못해 불안감이 커졌다.

고용 부진이나 통화 약세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관측되는 국가도 여러 곳이다.

호주는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내달 초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관측되고 있으며 지난 3월 금리를 인하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랜드화 가치 하락과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물가상승률이 겹쳐 오는 24일 금리 동결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신흥국 통화위기로 시장이 불안해진 상황에도 '나 홀로' 경기 회복세를 자신하는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돼 중앙은행들의 섹법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8일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이 종종 과장된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시장 자금 이탈론을 경계했으며 연방준비은행 총재들도 최근 잇따라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19일 현재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들의 미 기준금리 연말 전망치(중간값)는 2.25~2.50%로 연내 3차례의 추가인상 관측이 우세하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달러와 국제 금리 급등에 주요 신흥국이 정책금리 인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지 않았다가 투자자들이 불어난 경상수지 적자, 통화가치 급락, 물가 급등에 집중하면서 신흥시장으로부터 등을 돌릴까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국 통화위기 불안감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 때문이다.

20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기준금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세계 주요 20개 국가(G20) 중에서 올해 2분기 들어 기준금리를 인상한 곳은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등 통화가 불안한 2개국뿐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한국, 멕시코 등 상당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그중에서도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미국을 제외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는 곳은 없다.

비교적 낙관적인 경제 전망과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라는 뚜렷한 방향을 보여주는 미국과 달리, 나머지 선진국들은 긴축에 박차를 가할 만

가 인상 관측이 우세했는데도 영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1% 증가에 그치는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하자 인상 관측이 급격하게 힘을 잃었고 실제로도 동결로 결론 났다.

일본은행도 2016년 1월 기준금리를 -0.1%로 낮춘 이후 지난달 27일 금융정책회의에 이르기까지 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일본 정부 목표인 2%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고, 1분기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해 8분기 연속 성장세가 멈췄다.

캐나다은행은 올해 1월까지 6개월 새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추가로 올해 3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장률과 미국 통상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발디자이너를 찾아라...

한국신발디자인 공모전 작품모집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는 신발디자이너 발굴·육성 전략으로 '제4회 2018 한국신발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신발산업진흥센터는 19일 한국 신발디자인의 활성화 유도 및 감성디자인 확산을 통한 국내 신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발디자이너 발굴·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신

발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나만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신발디자인'이라는 주제로 3개 분야를 공모한다. 3가지 분야는 일상 및 레저에 활용가능한 다양한 신발디자인인 '애슬레저 슈즈', 트렌드(Trend)가 가미된 남성화 및 여성화 디자인인 '드레스 슈즈', 창

의성 넘치는 신발관련 컨셉 디자인인 '컨셉 디자인' 분야이다.

신발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공동작품으로는 불가하다. 접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22일까지이다.

대상은 상장 및 시상금 500만원을 받게 되며 그 외 입상을 하는 디자인은 오는 10월에 열릴 2018 부산국제신발 전시회(BISS) 전시장내 부스에 전시될 예정이다.

탁월한 선택, 후회없는 결정

Kendal / Park By The Bay

중부자바내 스마랑 전략적 위치

스마랑 시내

구분	토지면적	인구	1년 졸업생	GDP성장률	주요인프라
스마랑지역	39,800Km ²	3백3십만명	150,000명	6%	탄중항구, 스마랑 국제공항

산업단지 문의 : 박병현 팀장 (문의메일 : Park.byunghyun@sembcorp.com)
한국 : (82)010-9081-0424 / 베트남 : (84)012-7828-7293

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 (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

- VSIP BAC NINH 2007**
Area : 700ha(500ha IP and 200ha C&R)
Total 54 projects
- VSIP HAI PHONG 2010**
Area : 1600ha (500ha IP and 1100ha C&R)
Total 32 projects
- VSIP NGHE AN 2005**
Area : 750ha
Phase 1:279ha (198ha IP and 81ha C&R)
- VSIP HAI DUONG 2015**
Area : 150ha IP
Total 1 projects
- VSIP QUANG NGAI 2013**
Area : 1020ha (500ha IP 520ha C&R)
Total 09 projects
- VSIP I BINH DUONG 1996**
Area : 500ha IP
Total 238 projects - 100% occupied
- VSIP II BINH DUONG 2005**
Area : 2045ha IP (1345ha IP and 700ha C&R)
Total 206 projects

구분	VSIP박닌	VSIP하이퐁	VSIP응에안	VSIP광나이	VSIP빈중
토지가격	US \$70	US \$95	US \$38	US \$38	US \$70
공단특색	삼성, LG 1시간거리내	항구도시 (북부최대항)	인력풍부 (3백3십만명)	두산중공업	외국계최다 투자지역
추천업종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건설자재, 자동차부품	섬유, 신발 (노동집약)	섬유, 신발 중공업	전자/전자 식음료, 제약
최저임금	3급지	1급지	4급지	3급지	1급지
개발규모	150ha	1,600ha	750ha	1,120ha	2,500ha